



21C 國際競爭은 物流 Cost 商流·物流 分化和 調和를

順天鄉大 教授·韓國로지스틱스學會長
經營學博士 尹文奎

☞ 칼럼筆陣 ☞

- 尹文奎 [순천향대 교수·로지스틱스학회장 경영학박사] 29·32 號
- 安憲榮 [본지 편집인·포장물류연구소장·포장개발연구원 부원장] 27 號
- 趙炳默 [강원대학교 교수·농학박사] 28 號

1. IMF 餘波로 停滯된 物流活動

IMF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가장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물류분야이다. 우선 화물량이 급감되어 정상가동을 할 수 없는 기업이 속출, 휴·폐업하는 기업도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가장 바쁜 작업 중의 하나가 물류활동이다.

실제로 "Cost절감의 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물류의 매력이기 때문에 물류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역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류활동도 둔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제조업체의 생산활동은 위축되고 유통업체는 활기를 잃게 되다보니, 물류의 위상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IMF체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그리고 정리해고 등이 계속될 것이고, 물류분야도 예외일 순 없다. 이러한 여파로 그 동안 활발했던 물류교육 및 세미나도 뒷전으로 밀리고 기업마다 물류개선 활동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작금의 실태이다.

2. 21世紀 對應 物流 制度 整備 있어야

과거부터 물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부각되어 노동조건과 항시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동안 3D업종에 해당되는 분야(창고, 하역, 수·배송작업 등)로 주목되어 기피하는 현상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 속에서 물류가 급부상 되기 시작하면서 물류에 대한 인식도는 산업사

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물류분야는 표준화 자동화, 기계화, 전산화 작업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고, 항시 감량경영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경기침체 현상으로 많은 인력들이 기업에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기업의 우선 순위에서도 물류작업자체 역시 축소 되다 보니, 동 분야의 작업원도 그나마 자리유지하기도 불안한 것이 오늘날 물류업계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러한 암울한 현상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제조업이 활기를 되찾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게 되면 물류활동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경기 하에서는 물류체제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 미래를 보는 경영자의 자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류 개선활동을 통해서 상품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차원에서는 물류 기초시설인 도로, 항만, 철도, 공항, 화물터미널 등과 같은 SOC의 재정비의 구축과 21C를 대비한 물류혁신에 과감한 투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처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상에서의 물류 Cost의 손실이 없도록 물류의 제도적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3. 新物流 System에의 對應戰略 緊要

물류(物流)는 글자 그대로 재화(財貨)가 잘 흐르도록 관리해 주는 기술적 활동이라고 필자는 항상 강조해 왔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물류에 대한 인식부족, 기업의 물류개선 활동의 부진, 정부의 물류정책미흡 등으로 인해 선진 외국에 비해 물류Cost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유통시장의 기술력(Know-How)을 앞세운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속속 상륙하면서 한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 방식은 새로운 유통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SCM(Supply Chain Management)는 과거의 전형적인 유통방식의 개혁을 가져왔고 물류업무는 전문업체인 제3자 물류업체로 아웃소싱해야 하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정비와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많다.

4. 商流와 物流 分化와 調和

판매물류가 중심이었던 종래의 물류개념은 조달물류, AS등 전반 물류활동을 포함하는 로지스틱스로 변화하였음으로 이제는 종전의 협의의 물류단계에서는 탈피하여 미·일·유럽국가와 같이 광의의 Logistics 전략단계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적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유통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상류와 물류활동은 자국시장의 방어와 해외시장의 공략이라는 차원에서 Logistics의 전략적 개념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본래 유통은 이론 또는 실제상 정립되고 있는 상류와 물류에 있어, 상류는 물(物) 즉 재화의 개입없이 말이나 문서나 통신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행위(商行爲) 즉 판매행위이며, 물류란 포장·수송·하역·보관·정보라는 5대 요소를 골격으로 물(物) 즉 재화의 개입을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유통하는 것이며, 그 영역은 판매물류의 경우 뿐만 아니라, 조달물류와 사용 및 폐기회수 서비스영역까지 확대되었다 함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물류역할이 생산과 판매를 구성하여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판 활동의 조정과 상·물(商·物)분화와 조화도 중요하다. 상류와 물류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론상 분리가 확연하나, 포장에 있어, 공업포장(수송포장)과 상업포장간의 이화수분(異花受粉)현상과 같이 상류와 물류간에도 이화수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으로 상·물 분화와 조화는 물류합리화 견지에서 정립되어야 할 과제이다.

5. 21世紀 國際競爭은 物流 Cost

20세기를 마감하는 이 국면에 있어, 세계 경제질서는 개방화와 규제화, Bloc화라는 부조리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60억 돌파와 이 많은 사람들이 입고, 먹고, 숨기기 위해 발생하는 지구환경 오염속에서 그래도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자는 계속 공급되는 In Put와 계속 배출되는 Out Put의 시공(時空)속에서 어차피 재화의 생산과 재화의 유통 또한 복잡하고, 힘들어 질 것임으로 이 물류 전쟁을 맞는 21세기에는 어느나라, 어느기업이 이 Logistics의 강자가 되느냐에 그 승패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21세기의 국제 경쟁은 물류 Cost에 좌우될 것이다.

6. 電子商去來와 物流 Connect

급진하는 정보통신은 재택근무, 전자상거래까지 진전시켰다. TEL, FAX, VAN, E-mail, Home Page에서 영상 대화 시대까지 발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Soft Ware 내지 Hard Ware는 일부 물류와 연관된 정보와 업무처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상류 그 자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자 상거래 자체는 엄밀히 말하여 상류의 청약(請約)이며, 이 화면이나 설명을 듣고 역시 상품의 발주와 낙약(諾約)의 절차가 있을 뿐이다.

정보·통신에 의한 판매선전과 상품의 발주와 낙약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상류는 완료하였지만, 아직도 그 상품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재포장, 하역, 수송이란 물류의 주활동이 전개된다.

결국 정보통신은 상류의 꽃이지만, 물자의 유통 즉 물류는 직접 재화의 시간적·장소적 이동이 따라야 한다. 전자상거래 상류와 물류와의 효율적 Connect가 물류의 또 하나의 과제이다.